

## 메시지 4

###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 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성경: 계 3:7-22

- I.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계 3:7-13)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준비되며 새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A.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떠났다.(딤후 1:15) 따라서, 약 26년 이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하락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다.
- B. 유일하게 한 교회만 주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이다. 주님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높게 평가하시고 감상하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건강한 가르침의 말씀, 곧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3:8, 딤후 1:3-4, 6:3.
1.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고 조성하시며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다 — 딤후 1:3-6, 6:3-4, 고 후 11:2-3, 딤후 1:9, 골 2:19.
- C.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율조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엡 6:17-18, 시 119:11, 15)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다'(눅 12:2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시 119:48, 느 8:5-6).
- D. 이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들일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 안으로 건축하시어 그들을 살아 있는 돌들이자 보석들로 만드시고,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돌기둥들이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합병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 계 3:12상, 21:22, 3, 시 90:1, 요 14:23, 비 교 왕상 7:17.
- E.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이를 소유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새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 이 모두가 이기는 이에 속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F.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들 위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이기는 이들 안으로 일해 넣어져서, 그들에게 삼일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지고 그들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것을 가리킨다 — 계 3:12하, 22:4하.

- II.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려고 분투하는 것이다 — 엡 3:8, 고후 4:7.
- A. 이사야서 22장에서 하나님은 왕궁의 청지기였던 셉나를 해고하시고(15-19절) 엘리아김으로 대치하셨다. 엘리아김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 곧 어깨 위에 하나님의 집의 열쇠가 놓인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사 22:20-25, 계 3:7-8).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살전 5:16-19, 요일 1:7, 9, 비교 겔 1:22, 26).
1.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고용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위에 두셨을 때 해고하셨다 — 갈 2:20.
  2.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치하셨다 — 막 1:1-8, 마 17:3-5, 골 2:16-17, 히 10:5-10, 11:5-6.
  3. 참된 교회생활은 모든 성도가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치됨으로써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모두 셉나로서 참엘리아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인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신다 — 골 3:10-11, 고전 4:1, 벡전 4: 10.
  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치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접붙여진 생명의 문제이다. 야생올리브나무 가지들이었던 우리는 참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롬 11:17, 24).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이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치하신다.
  5.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결합하시어 우리와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끝났다.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써 우리를 대치하신다 — 롬 6:6, 갈 2:20, 빌 1:19-21상, 롬 8:16, 고전 6:17.
  6.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킨다. 우리는 한 면으로 해고되었지만 다른 한 면으로 쫓겨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갈 2:20). 이렇듯 임마누엘(사 7:14)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대치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골 3:10-11).
- B.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 접촉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계속 만져야 하고,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 고후 2:10, 롬 8:6, 10:12-13, 골 3:16, 마 5:3, 8.
- C.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자아를 부인함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음이라는 ‘열쇠들’을 사용해야 한다 — 계 3:7, 사 22:15-24, 마 16:18-19, 24-25, 17:5, 8.

D.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한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닌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 계 2:17, 3:12, 비교 21:22.

1.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기둥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나의 새 이름’은 기둥이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 기둥인 이기는 이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체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가 된다 — 계 3:12.

2. 새 예루살렘은 새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이다. 새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신랑의 증가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 요 3:29-30, 계 21:9-10.

3.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 롬 8:2, 눅 18:27, 비교 창 28:12-19, 요 1:51.

E.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둔다(비교 고전 3:12).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있다(계 3:8, 막 14:8).

F.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의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고, 누구든지 부를 때 풍성한 분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롬 10:9-10, 12-13).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빌 2:11), 그들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한다(고후 4:5).

III.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기 때 문에,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벧전 5:2, 엠 4:11, 5:29, 행 20:28).

A. 빌라델비아에서의 주님의 회복은 질에 있어서의 회복, 곧 교회의 원래 실질이자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요일 4:8)의 회복이다. 하나라는 참된 터, 곧 교회의 터 위에 서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계 3:7상, 비교 2:4, 7).

B.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하나라는 참된 터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한다 — 유 20-21, 고후 5:14, 요 12:3, 눅 7:47, 요일 3:14-16, 비교 시 133편.

C.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계 3:8).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은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며 누리도록 이끈다(고후 11:2-3).

D.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승리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에 수고해야 한다. 이러한 생활과 수고는 주님과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 요 21:15-17.

E.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요일 4: 7-8.

F.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 요일 4: 16.

G.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 요일 4: 19-21.

H. 장로들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여 몸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IV.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곧 타락하고 비뚤어진 빌라델비아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 계 3:14-22.

A. 라오디게아는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이전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출 33:14, 고후 2:10.

B.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의 자신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이전에 그것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미지근함과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라오디게아이다 — 계 3:15-17.

C.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지불하여 금과 흰옷과 안약이신 삼일 하나님을 더욱 얻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도하는 이기는 이로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다 — 계 3:18, 21.